

## 지자체 소식

### ■ 강원, 휴양·체험 숲 조성

강원도는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 주말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휴양관광과 농촌 현장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특화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114억원을 들여 농·산촌 주민 관광소득 증대를 목표로 홍천, 평창 등 4개 시·군 산림 859ha에 휴양 및 체험 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홍천군의 경우 내촌면 광암리 138ha에 돌배, 밤나무, 복숭아, 살구 등 향토수종과 더덕, 장뇌 등을 심어 녹색체험지구를 조성하고 야영장과 전통숙박시설 등 휴양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121ha에는 이효석의 소설을 배경으로 천년의숲, 향기의숲, 효석문학의 숲, 야생화길, 관찰로 등 체험공간을 만들고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산수유, 머루 등의 약용수림을 조성키로 했다.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기룡산 133ha에는 산림 휴양과 문화기능을 갖춘 기룡산 특용수 용재림단지, 남면 정자리 일대 208ha에는 약용수림과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해 녹색체험 산촌을 꾸밀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120ha에는 산초, 드릅, 오미자, 장뇌삼 등 산·약초재배단지 81ha와 복분자, 살구 등 유실수단지 18ha, 산촌체험관, 산채저온저장고 등이 설치된 체험공간을 갖출 예정이다.

### ■ 경남, 한국람사습지센터 현판식



환

경올림픽이라 불리는 2008년 람사당사국총회를 유치한 경남도가 우리나라 모든 습지에 대한 조사와 자료수집, 훼손된 습지복원 등을 담당할 한국람사 습지연구센터를 경남발전연구원에 설치하고 지난 20일에 김태호 도지사, 최덕철 경남발전연구원장, 습지전문가와 NG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한국람사습지센터의 인적구성은 센터장 1명과 3명의 팀장 등 모두 6명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윤성운 박사가 센터장을 맡아 우리나라 습지생태의 실태조사는 물론 습지 관리 복원 방안, 추가습지 발굴 등을 담당한다.

경남도는 이 센터는 습지 가운데 복원 가능한 곳을 찾아 복원하여 생태 관광지로 개발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고 말하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의 연구사업 지원도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람사습지센터 관계자는 람사총회 유치를 계기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인적 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 전국 습지를 연구 조사하는 한국습지센터 유치도 추진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 경북, 『2006 봄철 나무심기』행사 가져



경북도에서는 지난 16일 경주시 보문동에서 이의근 도지사와 도청 및 경주시 공무원, 도내 유관기관단체, 임업인 등 4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무심기행사를 가졌다.

이번 나무심기 장소는, 지난 2005년 태풍 나비 피해지역으로 쓰러진 낙엽송, 잣나무를 베어내고 도로변 산림 4

천5백여평(1.5ha)에 키 큰 단풍나무 5년생 650그루를 새로 심었다.

이의근 도지사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면서, 나무심기 참가자들에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발생 신고(포상금 최고 200만원)에도 협조를 당부하였다.

경주시의 소나무 재선충 발생은 2004년 양남면 수림, 강동면 단구, 서악동 무열왕릉 주변에 7.7ha가 발생하여 피해목 벌채 등 방제작업을 실행하였다.

경북 지역의 나무심기기간은, 기온차를 감안, 보통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다.(남부지방 3. 1~4. 10, 중부 3. 10~4. 20, 북부 3. 20~4. 30)

올해 나무심기계획은 도내 23개 시군 2,300ha에 107억원을 들여 소나무, 참나무 등 380만본을 4월말까지 심는다.

### ■ 광주, '호수생태원' 준공

광주시는 무등산 자락인 광주호 주변의 새로운 관광명소인 '호수생태원'을 1년 4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 20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이 준공식에는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하여 반명환 시의회의장, 강기정 국회의원 등과 지역주민, 공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호 주변 호수생태원은 총 5만 6천여 평의 부지에 장미, 철쭉, 수국 등 야생화 17만본을 식재하여 테마별 꽃단지를 만들고, 자연관찰원과 암석원을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하였다.

또, 목재계단을 따라 광주호를 자연스럽게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늪지에서 각종 새들이 실제로 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수생식물원, 갈대숲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와 여가문화 확산 등에 따른 가족단위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산책로 등 쉼터공간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메타세콰이어 양편 가로수 사이로 목재계단을 조성하여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와 웨딩포토 촬영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전남, 오염물질 배출시설 '문제업소' 위주 단속 강화

전남도는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민원유발 및 상습위반 업소 등 소위 '문제업소'를 위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해 환경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의 경우 도내 오염물질 배출 시설 5611개소와 오수 및 축산폐수 시설 1만4106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2665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각각 벌였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순천시 서면소재 전자부품조립 업체인 S사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광양시 태인동의 시멘트 제조업체인 K사는 미신고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 나주시 세지면의 도자기제조업체인 D사는 폐수무단방류로 조업정지 10일을, 담양군 대전면 소재 자동차용품 제조업체인 N사는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미이행으로 조업정지 명령을 각각 받는 등 모두 153개소가 적발됐다.

아울러, 오수 및 축산폐수 시설 지도·단속에서도 418개소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데, 이 가운데 323개소는 개선명령을, 나머지 95개소는 시정지시 등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경우도 155개소가 적발돼 조치이행명령(43개소)과 경고(57개소), 기타 개선명령 등(55개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도는 이처럼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민원유발 및 상습위반 업소를 위주로 환경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한 '기획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지자체 소식

### ■ 울산, 2006년 환경보전 총 5119억 투자

울산시는 2006년도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10대 분야에 총 511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울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총괄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5년간의 실천 계획을 담은 '제2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4~2008)'을 확정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에코폴리스 울산 110대 시범사업, 도시녹화마스트플랜, 하수도정비계획,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울산시의 다양한 환경 시책 등과 연계 추진된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국·시비, 민자 등 총 5118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환경관리 등 10대 추진분야에 총 89개 단위사업(투자사업 67개, 시책사업 22개)을 추진한다.

분야별 사업을 보면 환경관리분야는 친환경적 기업경영의 확대, 생태산업단지 조성 등 등 11개 사업, 자연환경분야는 공원녹지의 지속적 확충, 생태연못 조성사업 13개 사업이 추진된다.

대기환경보전분야는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 12개사업, 수질환경보전분야는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이 추진된다. 상수도 관리분야는 상수도 우수율 제고사업, 상수도시설 확장 및 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 폐기물관리분야는 포장 폐기물 감량화사업, 폐기물 재활용 산업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이 추진된다.

유해화학물질분야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며 토양오염·해양환경·소음진동 분야는 지역별 토양오염 실태조사, 울산연안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소음 진동 문제 종합대책 방안 수립 등 13개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울산시는 제2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2차년도인 지난 2005년에는 총 2683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환경관리 등 10대 분야 89개 단위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시는 태화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전개 연어가 회귀하고 백로가 서식하는 생명의 강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자율환경 관리 협약체결과 기업체 환경마일리지 운영 등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시켰다.

또한, 태화강 수질 개선, 수량 확보, 생태 복원, 공간 조성 등 중장기적인 환경보전 및 개발계획 마스트 플랜을 수립했으며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을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 추가 매립장 확보난 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제주, 멸종위기식물 및 특산식물 복원사업 추진

환경산림과 수목시험소에서는 제주 자생식물의 다양성 유지와 보전을 위하여 멸종위기식물 및 특산식물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솜다리, 한라장구채, 설앵초 등 한라산 고산식물에 대한 배양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2,000여주를 순화실 및 온실 등에서 적응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솜다리는 세계에서 한라산정상부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로 현재 50여개체만 생육하고 있는데 점차 개체수가 줄어 들고 있는 희귀식물의 하나이다. 금년 4월까지 순화작업을 완료하면 본격적인 복원작업이 추진되는데, 활착이 양호한 개체들을 금년 하반기 중 자생지 여건등을 감안하여 500주를 한라산 백록담 일원에 우선 복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광이오름 등에 복원한 멸종위기야생식물 '대홍란'도 금년 상반기에 1,000주를 추가적으로 복원하여 안정적인 분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환경산림과 수목시험소에서는 물부추, 개가시나무, 대홍란 등 멸종위기식물 3,000여본과 제주산버들, 구상나무 등 특산식물 7종 15,000여본을 자생지에 복원한 바 있다.

### ■ 전북,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및 관련기업 유치전략 시동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문의가 이어지면서 전라북도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와 전북도가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중심의 테마파크 건설로 결정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건설과 함께 지난 16일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승소판결로 비교적 대단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한 서해안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 특히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대단위 투자와 기업유치가 기대된다.

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산업을 연계할 목적으로 그 동안 서해안 최초로 새만금지역에 2001부터 2004년까지 총 88억원을 투자하여 6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완료 하였고 금년에는 73억원을 투자하여 추가 4기를 건설 추진중에 있어 그 동안의 운영자료를 기업활용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청소년들의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 서울, 청계천 상류부에 물고기 서식처 조성



청계천 하류부에서만 볼 수 있었던 물고기를 상류에서

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청계천 상류는 유속이 빠르고 호안이 단조로워 물고기가 서식하기 힘든 환경이었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순직)에 따르면 거석, 목재방틀, 인공 산란시설 등 물고기 서식과 산란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추가 조성하는 공사를 마무리한다.

현재, 청계천 새벽다리까지의 상류에도 물고기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목재방틀과 여울보가 각각 11개소 조성돼 있으나 빠른 유속과 단조로운 호안에 비해 수가 적었다. 하지만, 청계천을 찾은 방문객들은 하류뿐 아니라 상류에서도 물고기 만나기를 바라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모전교에서 물고기 서식이 확인된 다산교까지 총 연장 3.26km에 걸쳐 거석 16개소, 거석수제 16개소, 목재방틀 20개소(60m), 인공 산란장 5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거석, 거석수제, 목재방틀은 유속을 감소시키고 물고기가 상류로 오르다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인공 산란장은 산란과 부화를 돕기 위한 곳이다.

이번에 추가 조성하는 시설은 기존 어류서식 시설을 토대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며 수생식물도 함께 식재한다.

거석은 광통교에서 새벽다리까지 총 16개소에 놓는데, 수생식물을 식재한 목재방틀과 함께 설치해 휴식이나 산란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또 홍수때는 피난처로도 쓰인다.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온 물고기들의 아늑한 삶의 공간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거석수제는 돌을 모아 섬처럼 쌓은 것으로 새벽다리에서 다산교까지 총 16개소 설치한다. 상류와 중류를 이어주는 다리와 물고기 놀이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밖에 인공 산란장도 5개소에 꾸며져 물고기들의 산란 및 부화를 유도한다.

하류에서 거슬러오르는 물고기 외에도, 상류부 자체에서 생명의 탄생과 성장이 이뤄짐으로써 건전한 수생생태계 조성과 도심속 생태하천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된다. ◀